

# 사람 사이 심리·사회적 관계 이용하는 ‘지능적 해킹’

오바마·빌게이츠 등 저명인사 트위터 뚫은 ‘사회공학 공격’ 과 예방법

피싱메일 악성코드·전화도청·버려진 문서·개인적 접근·역 사회공학 등 다양한 방법 이용 정보 캐내...개인 신상 담긴 문서·온라인 정보 철저 관리

트위터에서 최근 유명인사들을 타깃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일어났다.

해킹 피해를 입은 계정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등 130여개에 달한다.

해킹범은 이들 유명인사 이름으로 “30분 또는 1시간 안에 비트코인(가상화폐)을 보내주면 배로 되 돌려주겠다”는 트윗을 올렸다. 트윗에는 가상화폐를 보낼 수 있는 피싱 사이트가 함께 적혀 있었다.

트위터는 1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해커가 ‘사회공학 공격’(Social Engineering Attack)을 통해 트위터 내부 직원을 노려 해킹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커들이 트위터 직원을

통해 회사의 내부 시스템과 도구에 접근한 뒤, 유명인들의 계정을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보안 분야에서 ‘사회공학’은 기술적인 방법이 아닌 사람 사이의 심리·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정보를 캐내는 기법을 뜻한다. 시스템 취약점을 노리기도 한다, 사람이 직접 정보를 흘리게 만드는 ‘지능적 해킹’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사회공학 공격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온라인 ▲전화 ▲폐기물 관리 ▲개인적 접근 ▲역 사회공학 등이다.

‘온라인’은 피싱(Phishing) 메일 등으로 악성코드를 심어 보안 정보를 캐내는 방식이다. 전화를 도청하거나 통화 중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기도 하며,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한

다. 쪽지나 버려진 문서 등 폐기물을 수집해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사회공학 공격에 포함된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접근해 직접 정보를 물어보기도 한다. 협박·설득하거나 환심을 사 정보를 누설하게 만들기도 한다.

‘역 사회공학’은 피해자가 IT전문가를 가장한 해커에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흘리도록 이끄는 방식이다. 해커가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를 고쳐주는 척 하며 정보를 빼내는 식이다. 사회공학 공격은 보안업계에서 역사가 깊은 해킹 방식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 ‘해커의 재앙’으로 불렸던 케빈 미트닉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전화·감청 등 방법만으로 노키아, 모토로라, 쉘컴 등 최소 35곳의 기업 네트워크를 드나들며 기밀을 유출하고 소프트웨어를 훔쳐 3억여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넷 보안의 맹점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휴대폰번호, 계좌 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가 디지털화돼 온라인에 저장되는 최근 사회공학 공격

은 중요한 보안 이슈로 재부상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키워드를 담은 피싱 메일 등으로 호기심과 심리를 이용하는 등 수단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보안업체 이스트시큐리티는 2020년 예상되는 5대 보안이슈를 발표하며 첫 번째로 ‘사회공학 공격 기법 범위 확대’를 꼽았다. 보안업체 안랩도 2020년 상반기 5대 보안이슈 중 ‘코로나19로 위장한 사이버 공격’,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개 항목을 사회공학 공격으로 선정했다.

사회공학 공격은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완벽하게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용자가 미리 주의하는 게 최선이다. 개인은 신상이 담긴 문서나 온라인 개인 정보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정보를 요청한 사람의 신원을 꼼꼼히 체크하고,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중요 정보를 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일몰 후 북서쪽 밤하늘 보세요”

23년만에 맨눈으로 혜성 관찰

이번 주말 북서쪽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긴 꼬리를 지닌 혜성을 맨눈으로 볼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측은 지난 3일 수성 궤도 근처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근일점)을 통과한 혜성 ‘C/2020 F3’(NEOWISE-니오와이즈 혜성)가 오는 23일께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접 거리는 0.69AU(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AU)로, 지구에는 안전한 궤도로 접근 중이라고 천문원은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혜성을 일출 전 북동쪽 하늘과 일몰 후 북서쪽 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혜성을 볼 수 있기는 1997년 헤일-밥 혜성 이후 23년 만이다.

현재 밝기는 2등급 정도인데, 오는 20일부터는 3등급 이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기상 조건만 좋다면 이번 주말이 관측 최적기이다.

정해임 천문연 대국민홍보팀장은 “일몰 후 혜성의 고도가 10도 이상으로 높아 관측에 더 유리하다”며 “날씨가 맑고 빛 공해가 적은 곳에서 일몰 후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오와이즈 혜성은 지난 3월 27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 탐사 위성이 발견한 33번째 혜성이다.

/연합뉴스

한컴, 리눅스 기반 PC용 운영체제

‘한컴그룹’ 출시...개인 사용자 무료

한글과컴퓨터가 최근 리눅스 기반의 PC용 운영체제(OS)인 ‘한컴그룹’을 출시했다.

한컴그룹은 데비안 리눅스를 바탕으로 만든 개방형 OS로, 웹브라우저·이미지 뷰어·동영상 플레이어·압축프로그램·메모장·계산기 등을 기본 탑재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한컴은 올해 정부·공공기관의 개방형 OS 도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기업·소비자·공공기관 등 다양한 버전의 한컴그룹을 내놓고 개발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개인 사용자는 한컴그룹을 무료로 쓸 수 있다. 한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회사 관계자는 “PC 사용환경이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환경으로 변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7 기술지원이 종료되는 등 새로운 OS가 필요한 시대”라며 “MS 윈도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개방형 OS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

세계 10번째...군 “전작권 전환 핵심 전력 확보”

한국의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로 기록됐다.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는 20일(현지시간) 오후 5시30분(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기준 21일 오전 6시30분) 아나시스 2호가 팰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고 밝혔다.

아나시스 2호는 발사 약 32분 후 고도 약 630km 지점에서 발사체로부터 분리됐고, 이어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8분께 첫 수신훈 성공했다.

아나시스 2호는 약 8일 후 정지궤도(약 3만6000km 상공)에 안착한 뒤 본격적인 임무에 나서게 된다. 이후 약 1개월간 위성의 성능과 운용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군은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림에 따라 정보 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다.

한국군은 그동안 민간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사용해 군 통신체계를 운용해왔지만, 군 전용이 아니어서 적의 ‘재밍’(전파교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전·평시 군 통신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군은 위성을 이용한 부대 간 통신, 부대와 장병 간 통신, 장병과 장병 간의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장병 개개인이 위성 단말기를 착용하고 작전에 나설 경우 언제,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또 “최초의 군 전용 위성 확보는 전

사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와도 연관 있다”며 “한국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록히드마틴사와 맺은 절충교역(무기판매에 따른 기술이전이나 반대급부)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한국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택하면서 록히드마틴은 군 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했고, 록히드마틴은 이후 에어버스와 군 통신위성 제조를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에어버스는 자사의 통신위성 ‘유로스타 E3000’을 기반으로 아나시스 2호를 제작했고, 계약에 따라 한국군이 소유권을 갖게 됐다.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린 스페이스X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했으며, 지난 5월 30일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 발사에 사용된 팰컨9 로켓의 1단 추진체 B 1058은 ‘크루 드래건’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실어올릴 때 활용된 것으로, 대서양에서 회수해 재사용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스페이스X는 올해 들어 12차례 로켓을 발사했지만, 고객 주문용 위성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페이스X는 이전의 11차례 발사에서 자사가 자체 개발한 스타링크 통신위성과 미 우주군 전용 위성을 쏘아 올렸고,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를 ISS로 실어날랐다.

/연합뉴스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21일 미국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를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